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14.(목) 오전 11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0. 14.(목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상품과
담당과장	안창용 과장(044-203-5790)	담 당 자	김태현 사무관(044-203-5795)

산업부,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(CPTPP*) 관련 자동차, 바이오, 디지털 등 신산업 업계 간담회 개최

*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

- 미래차·반도체·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국제적 공급망 강화 및 디지털 무역 자유화 기반 확대 기대 -

□ 산업부 **전윤종 통상교섭실장**은 10.14(목) 오후 반도체, 자동차, 바이오, 디지털 등 주요 신산업 업계를 대상으로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, 최근 아·태 지역의 **통상환경을 업계와 공유**하는 한편, **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**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

< CPTPP 신산업 업계 간담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: '21.10.14(목) 16:00 / 무역협회 51층 접견실
- **참석자**: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(주재), 산업연구원, 무역협회, 한국반도체산업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바이오협회, 한국데이터산업협회,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, 한국핀테크산업협회,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
- **논의내용**: CPTPP 등 아·태지역 통상환경 점검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논의

□ 전윤종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 "최근 통상의 범위가 기존의 시장 개방·경제협력에서 **디지털·기후변화와 같은 非전통적·융합 이슈**로 확대되는 가운데, 통상 주요국들이 포함된 아·태 지역의 경제적,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"고 평가하고,

○ "**아·태 지역의 통상 플랫폼**을 지향하는 CPTPP에 최근 중국과 대만이 전격 가입 신청함으로써 CPTPP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며, 아·태 지역 통상질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·기술·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**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**가 있다"고 언급함

□ 참석한 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, 베트남 등의 상품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, **미래차, 반도체, 바이오 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강화**되고,

○ 또한, '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'과 '무역 원활화*' 조항과 같은 **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**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헬스, 에듀테크와 같은 **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에도 도움**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*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,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,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해소 등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산업 업계 간담회에 이어 10.21(목)에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**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**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**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**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 김태현 사무관(☎044-203-57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